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 아산화목교회 가정국 2세 중학교1학년 김은솔 입니다.

지난 8월 16일 주일예배 후 저녁 6시-7시경 예수님께서 빨리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 중에 받은 계시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급히 섭리사람들에게 전하라고하셔서 편지를 올립니다.

처음에는 첫사랑이 식어가던 저부터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 예수다. 너 나 많이 사랑했잖아. 절대로 식지 않았어야 할 사랑이었는데 식으면 어떡하냐
나는 널 너무 사랑하는데 처음과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날 동일하게 예전처럼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사랑하자 영원히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오직 나만 사랑해야지. 다른 곳 쳐다보면 어떡하냐? 난 동일하다. 난 처음과 나중까지 동일하다. 동일하자 우선 온전한 사랑을 다시 찾자. 정말 많은 것을 보여 주었잖아. 정말 많이 역사해 주었잖아. 의심하지마라. 나의 신부야. 나만 사랑하자. 난 너의 영원한 신랑이다. 나만 사랑하자. 난 너의 영원한 신랑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됐는데. 아파했는데 내가 너를 바로 옆에서 눈물 흘리며 지켜보았는데. 영원히 변질되면 안되. 변질되지 말자 동일하자. 동일하자. 지금 첫사랑이 식은 자가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다. 나의 심정을 알아줘 심정 받아 오직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변질되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의심하지마라. 니가 그렇게 찾던 예수야. 나 너 옆에 있었어. 왜 몰라 왜 몰라 왜 몰라. 사랑한다. 나를 아프게 하지마라. 너 정말 사랑해. 내말 잘 들어 절대로 나만 사랑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탄한테 조건 잡히지 마. 어디서나 환경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지. 마음에 내가 있다. 나는 너를 진정 귀하게 쓰려 하는데..... 너를 나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하는데. 딴 데 보면 안되지. 안되지. 알잖아 나 너 사랑하는 거. 너도 나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작게 생각하지 마. 정말 큰 것을 너에게 주었다. 너 할 일 있잖아. 내가 말한 자 깨워줘. 마음이 아프다. 나의 마음이 너무 아파 선생을 통해 말했다. 나 찾으려면 누구에게나 응답할테니 진실로 찾으라고 해 나 위로 해 줘야지. 나 예수다. 어찌 그리도 모르느냐. 나의 이 사랑은 영원하다. 포기하지마라 어떤 죄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줄수 있으니 진정으로 회개해라. 모든 자들이 나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형제사랑 절대 작은 것 아니다. 형제 사랑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 해 보이는 형제 내 몸 같이 사랑해 줘야지. 들리느냐? 나의 이 흐느끼는 소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눈물이다. 모두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은솔아 너부터 첫사랑을 찾고 깨우쳐주고 전도해. 힘내자. 내가 함께함을 잊지 말고. 나 너 사랑해 섭리사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사랑해. 제발 전해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큰 것인데. 나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다. 마음이 아파. 나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다. 나의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시다. 마음이 아프시다.

또 섭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하여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포기하면 666 사탄이 주관할 것이다. 포기할 것이 따로 있지. 나를 만나는 것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줘. 포기하지 말라고. 내 마음이 아프다. 성령을 소멸한자 꼭 다시 찾으라고 해! 절대로 낙심 말고 진정으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라고 해! 나의 영을 부어주었는데 절대 포기 말아. 포기 말아. 포기 말아. 포기 말아. 포기 말고 회개하고. 전도도 크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식지 말고. 내가 다시 너에게 왔다. 예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함께 해 줄게. 대화하자. 나 여호와로다. 사랑한다. 마지막.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구를 돌리고 있다고 말 했잖아. 선생 혼자 나의 손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듯이 민족도 동일하게 사랑 한다. 그 때가 되면 나의 큰손이 떨어질 것이다. 지진과 홍수 각종 재앙들과. 피 터지는 전쟁. 너무 끔찍하여 너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순간 펜이 놓아지며 땅을 주먹으로 계속 쳤습니다.) 나의 손이 떨어지면 세상이 요동 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리 나를 애타게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준비하고. 사랑의 준비하고. 나를 진정으로 진실 되게 사랑 하는 자가 날 맞을 수 있다. 성령이. 나의 영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성령. 나의 영을 받지 못하면 나를 맞을 수 없다. 너희에게 모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었지만 느끼지 못한 자. 소멸한 자. 의심한 자.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자. 잘하는 자는 잘한다. 모두 잘하는 자가 되어라. 진정으로 진실 되게 나를 부르고. 사랑해야지. 진정으로. 진정으로 간구의 그릇. 사랑의 그릇, 전도의 그릇, 관리의 그릇, 실천의 그릇, 의의 그릇, 형제 사랑의 그릇 모두 준비해 놓아라. 준비하고 때가되면 다 부어 준다. 다 부어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서운함 타지마라 서운함 타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서운함으로 많은 역사가 깨졌는데, 나의 많은 계획이 서운함으로 깨진 것인데 너까지 서운함 탈 것이냐? 첫사랑이 식은 자 다시 다 첫사랑에 불을 붙여라.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찾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섭리사에게 말씀하심.

사탄은 서운함을 주는 영이다. 나의 사랑을 식게 하고 이성의 사랑, 세상의 사랑을 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를 꼬시는 영이다. 언제까지 사탄에게 잡혀 살래? 언제까지 나를 애태울 것이냐? 언제까지 나의 심정을 타게 할 것이냐. 나의 아버지의 분노를 풀어 드려야 할 너희들이 세상을 쫒으며 나를 멀리한다면 어떡하냐?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야. 이성이 뭐가 그리 중하다는 것이냐? 나의 아버지는 화가 났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를 최우선 하여 일체되어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버리지 못하였다. 세상을 더 좋아 하였다. 첫사랑이 식어 버린 자. 다시 회복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되겠느냐? 나의 피 눈물도 헛된 것이 되어 버려선 안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지어준 그 십자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지어준 그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다. 세상을 쫒지 않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벌써 세상적인 문화를 다 접하지 않았느냐? 잘하는 자는 잘한다. 모두 힘내고 잘하는 자가 되자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는데 왜 낙심하느냐? 낙심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그까짓 세상 문화는 어둠의 문화다. 그것에 빠지고, 영원한 어둠에 빠지려느냐? 절대, 절대 멀리 하자 멀리 하자.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찾는 예수다.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예수다. 사랑해... 힘내자... 화이팅!!!